

에너지동향 ①

미국의 중장기 에너지지표 분석

'89년 현재 미국의 석유의존도는 40.5%이나 이는 점차 축소되어 2010년에는 36.8%에 이를 전망이다. 장기적으로 볼때 석탄과 수력·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될 것이나 원전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다.

미국은 에너지소비와 석유수입 실적에 있어서 세계 제1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. '88년 미국의 1차에너지 소비실적은 1940.8백만TOE로 자유세계 전체의 36%에 해당되고, 석유수입량은 6.59백만b/d(자유세계 수입량의 25%)이었다. 그 영향력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중장기 에너지지표는 세계에너지시장전망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.

미국의 1차에너지 소비는 '89년의 1959.4백만TOE에서 2000년 2266.6백만TOE, 2010년 2522.6백만TOE로 연평균 1.2%의 증가세가 예상된다. 이같은 전망은 같은 기간동안 실질GNP가 연평균 2.4%씩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.

한편 국제원유가격(OPEC평균유가)은 '89년의 \$16.6b/d에서 연평균 3.6%씩의 실질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'95년 \$19.14(경상가격 \$25.2), 2000년 \$26.

08(경상가격 \$43.8), 2010년 \$34.61(경상가격 \$61.2)로 전망된다. 원유가격상승은 석탄가격(실질상승 1.1%/년)보다

는 높지만 천연가스가격(실질상승 5.6%/년)보다는 낮다.

'89년 현재 미국의 석유의존도는 40.5%이나 이는 점차 축소되어 2010년에는 36.8%에 이를 전망이다. 장기적으로 볼 때 석탄과 수력·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될 것이나 원전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다. 천연가스소비는 2000년이후 감소추세가 예상된다. 미국의 석유수입량은 '89년의 7.2백만b/d에서 연평균 2.6%씩 급속하게 늘어나서(동기간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0.7%/년), 2010년의 그것은 무려 12.33백만b/d에 달할 전망이다. 그 결과 미국의 석유수입의존도는 현재의 44.6%가 2010년에는 65.2%가 높아지게 된다. 한편 에너지해외의존도는 '89년의17.0%에서 2010년에는 22.2%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.

미국의 장기에너지지표(기준전망)

	'89	'90	'95	2000	2010	연평균증가
OPEC평균유가 ('89년 \$/b)	16.60	15.76	19.14	26.08	34.61	3.6%
국내천연가스가격 ('89년 \$/천cf)	1.78	1.81	2.25	3.23	5.63	5.6%
국내석탄가격 ('89년 \$/MT)	25.18	25.09	25.84	27.19	31.47	1.1%
GNP ('82년 \$십억)	4,139	4,214	4,783	5,392	6,799	2.4%
1차에너지 소비 (백만 TOE)	1959.4	1987.3	2138.6	2266.6	2522.6	1.2%
-석유	(40.5)	(40.3)	(39.2)	(38.2)	(36.8)	0.7%
-천연가스	(22.4)	(22.5)	(23.2)	(24.2)	(21.0)	0.9%
-석탄	(22.6)	(22.2)	(22.5)	(22.6)	(26.7)	2.0%
-원자력	(6.7)	(6.9)	(6.6)	(6.4)	(6.0)	0.6%
-수력·기타	(7.8)	(8.1)	(8.5)	(8.6)	(9.5)	2.4%
석유수입량 (백만b/d)	7.20	7.61	9.13	9.95	12.33	2.6%
석유수입의존도(%)	44.6	46.8	53.6	56.5	65.2	-
에너지해외의존도(%)	17.0	18.0	20.9	21.7	22.2	-
에너지소비원단위 (TOE/'82년불변GNP전\$)	0.473	0.472	0.447	0.420	0.371	-1.1